

도시재생론

청계천 복원 사업 및 2050 마스터플랜

32222672 오경환
32223372 이예준

현재 청계천의 모습



소개 목차

01 청계천 복원 사업

1.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추진과정
3.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
4.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해외 반응

02 청계천 2050 마스터플랜

1. 2050 마스터플랜의 등장배경과 비전
 2. 2050 마스터플랜 단기계획(2014~2018)
 3. 2050 마스터플랜 중기계획(2019~2030)
 4. 2050 마스터플랜 장기계획(2031~2050)
 5. 앞으로의 방향성 제언
-

CHAPTER 01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1910~1958) → 2003~2005
- 1958~1978 → 2013~현재
- 1980~1990년대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1910~1958)



근대적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준설공사 실시.
이 시기부터 공식적으로 '청계천'이라는 명칭 사용.



해방 후 청계천은 도심 빈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다.
625전쟁 때에는 맑은 물이 흘렀다가 6.25전쟁 이후
판자촌이 형성되며 생활하수로 하천 오염과 환경 문제 심화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1958~1978



현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위생과 경관을 해치는 판자촌 철거와 주민 강제 이주, 상점가·맨션 건설 및 구간별로 청계천 복개가 진행되며 하천의 기능 상실

1967~1971년 청계고가도로(3.1도로) 건설을 통해 도심 교통난 해소와 개발을 상징했다.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1980~1990년대



복개 이후 청계천은 도심 간선도로 및 상업지구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천 구조물과 고가도로의 노후화 및 안전 문제 대두.

청계천의 역사 및 변천과정

2003~2005



1971년에 완공된 청계고가도로는 2000년대 이후 안전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환경수준 악화, 도심 경쟁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3~현재

청계천 개선·보완 사항

기 간	개선·보완 내용
단기 (2014~2018년)	- 하천 흐름 곡선화, 보 철거 및 징검다리 개선 - 하천 수목과 유사한 수림대 설치 - 수표교 원위치 이전을 위한 안전진단·부지매입
중기 (2019~2030년)	- 수표교 등 역사 문화재 중건 - 백운동천·삼청동천 등 지천 계곡수 유입 - 중·하류 구간 수질개선
장기 (2031~2050년)	- 옥류동천, 남산동천과 청계천 물길 연결 - 역사문화거리·보행 우선가로 조성 - 매력적인 청계천 및 주변 지역조성

서울시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 2050년까지 구간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청계천을 개선 및 보완한다는 '청계천 2050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자료: 서울시〉

CHAPTER 01

청계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추진과정

청계천 복원 사업의 유형

목적

-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 생태환경의 회복
- 청계고가도로와 복개의 위험요인 예방
- 지역 간 균형 발전



청계천 복원 사업의 유형

도심환경 개선

생태환경 복원

복합적
도시재생
성격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과정

1

기획 및 준비

- 기초 타당성 조사 및 예비설계
-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2

철거

- 5단계 공사 구분
- 교통 유지 대책
- 안전, 환경 관리

3

하천·친수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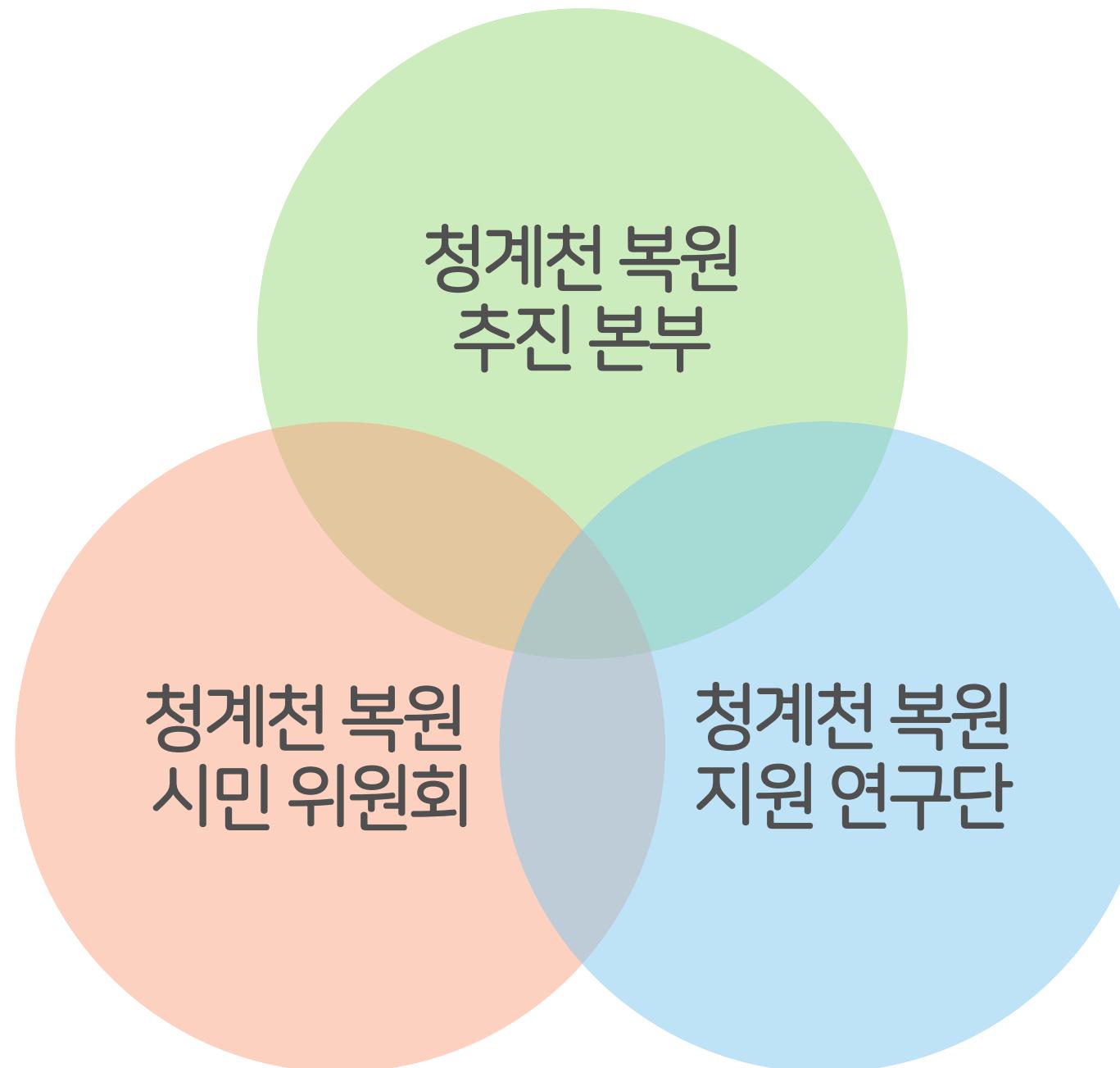
- 인공습지, 식생대 설치
- 보행교, 친수시설 설치

4

개방·운영

- 시운전 및 안전점검
- 개장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과정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 추진 본부, 시민 위원회, 지원 연구단으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

청계천 복원 전 과정에 걸쳐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과정



시민참여

시민위원회에서 공청회, 워크숍,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복원사업 인접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일반시민
- 관계전문가
- 이해관계인

충분한 의견수렴



복원추진본부에서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 시행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한 의견 수렴

청계천 복원 사업의 추진과정



1단계
도로, 조명 철거

2단계
콘크리트 복개판관로 해체

3단계
청계 고가도로 철거

4단계
하천 바닥둔치 복원

5단계
경관생태 마무리

CHAPTER 01

청계천 복원사업의 의의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환경 생태 복원



어종 4종 → 25종 / 조류 6종 → 36종 / 곤충류 15종 → 19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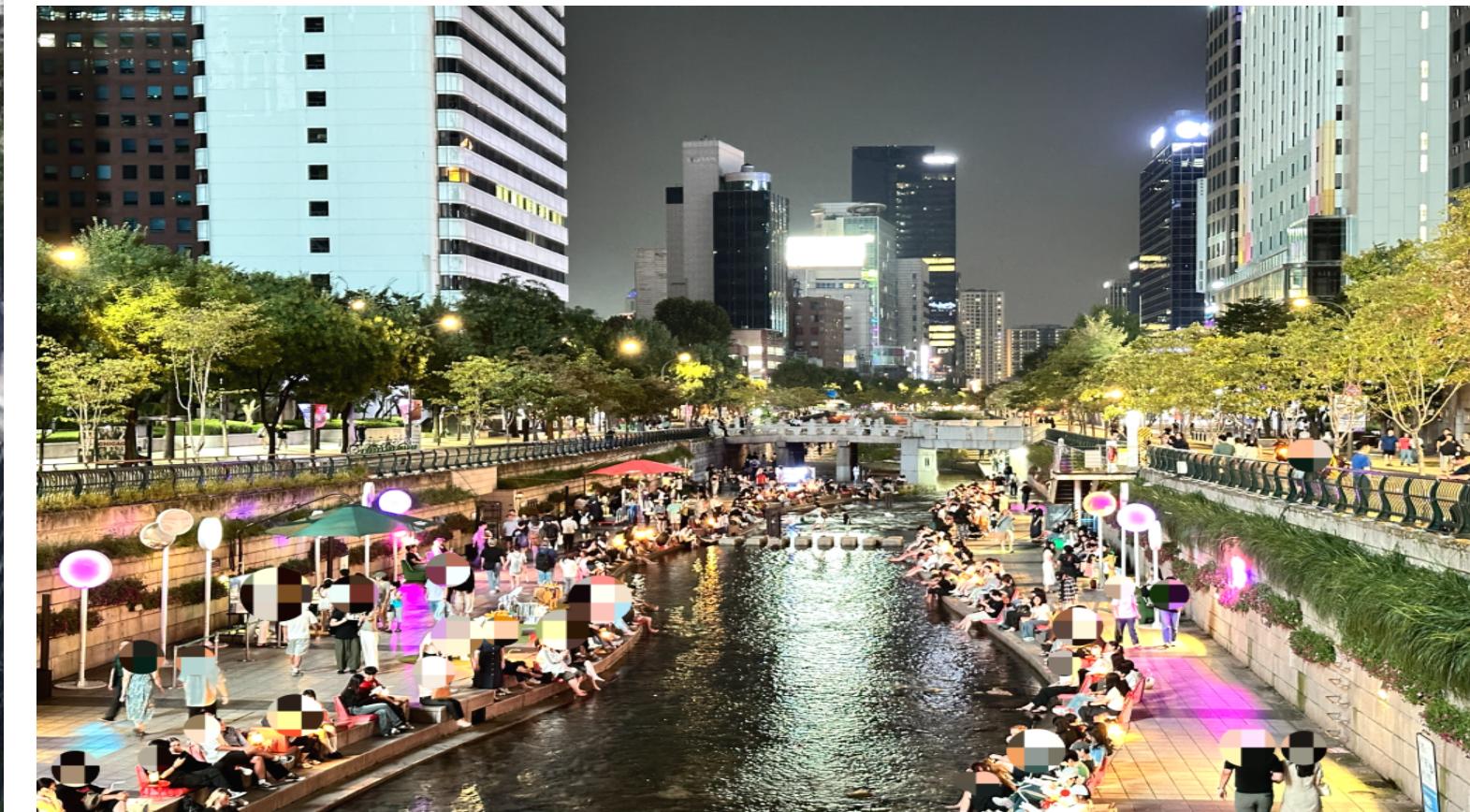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휴식공간 제공



그늘막, 파라솔 설치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작용

생태공간 조성으로 도심 내 부족했던 쉼터 제공,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노후화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해결



- 청계 고가도로 붕괴 위험 지속적 제기, 고가도로 아래 안전사고 빈번히 발생
- 청계 고가도로 철거로 위험요소 제거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고가도로 철거로 미세먼지 오염수치 감소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청계천 복원 이전

- 대기오염
 - 이산화황 : 0.007 ppm
 - 이산화질소 : 0.055 ppm
 - 일산화탄소 : 0.93 ppm
 - 미세먼지 : $86 \mu\text{g}/\text{m}^3$
- 도시열섬저감
 - 청계천 주변지역 서울평균기온보다 2.2°C 높음

청계천 복원 이후

- 대기오염
 - 이산화황 : 0.004 ppm
 - 이산화질소 : 0.049 ppm
 - 일산화탄소 : 0.67 ppm
 - 미세먼지 : $64 \mu\text{g}/\text{m}^3$
- 도시열섬저감
 - 청계천 주변지역 서울평균기온보다 1.3°C 감소

- 청계 고가도로 철거 → 교통량 감소 → 미세먼지 오염수치 감소
- 청계천 주변 서울 평균기온대비 여름철 기온 1.3도 정도 낮아져 도시열섬현상 완화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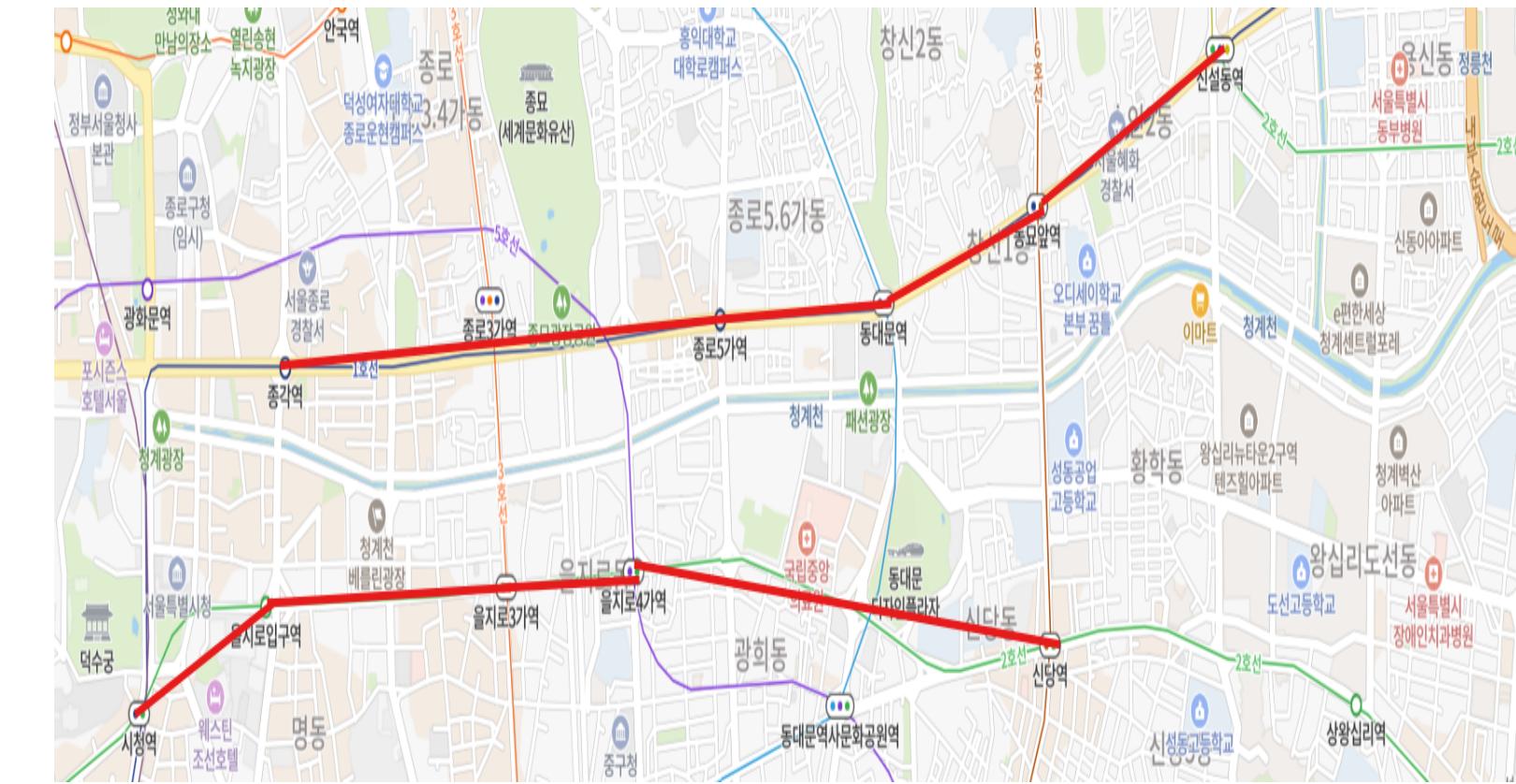
주변 상권 활성화



- 무교동을 비롯한 청계천변 일대 외식업, 카페, 부동산 임대업 증가
- 세운상가 일대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신축 활성화
- 청계천 유동인구 증가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보행-대중교통중심으로의 전환



-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22개의 보행교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구축 및 남북간 보행 연결 강화
- 1호선, 2호선과의 접근성이 좋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의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모델 제시

CHAPTER 01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해외 반응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해외 반응

Cities Peel Back Pavement To Expose Watery Havens

From Page A4

to places as distant as Los Angeles to describe the project to other urban planners.

Some 90,000 pedestrians visit the stream banks on an average day.

What is more, a new analysis by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ound that replacing a highway in Seoul with a walkable greenway caused nearby homes to sell at a premium after years of going for bargain prices by comparison with outlying properties.

Efforts to recover urban waterways are nonetheless fraught with challenges, like convincing local business owners wedded to existing streetscapes that economic benefits can come from a green makeover.

Yet today the visitors to the Cheonggyecheon's banks include merchants from some of the thousands of nearby shops who were among the project's biggest opponents early on.

On a recent evening, picnickers along the waterway included Yeon Yeong-san, 63, who runs a sporting apparel shop with his

The project has yielded political dividends for Lee Myung-bak, a former leader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giant Hyundai Corporation. He was elected Seoul's mayor in 2002 largely around his push to remove old roads — some of which he had helped build — and to revive the stream. Today he is South Korea's president.

Even strong critics of the president tend to laud his approach to the Cheonggyecheon revival, which involved hundreds of meetings with businesses and residents over two years.

A recent newspaper column that criticized the president over a botched police raid on squatters ended with the words "Please come back, Cheonggyecheon Lee Myung-bak!" — a reference to the nickname he earned during the campaign to revive the stream.

The role of Seoul's environmental renewal in Mr. Lee's political ascent is not lost on Mayor Philip A. Amicone of Yonkers, a city of 200,000 where entrenched poverty had slowed a revival project. Once the river restoration was added to the plan, 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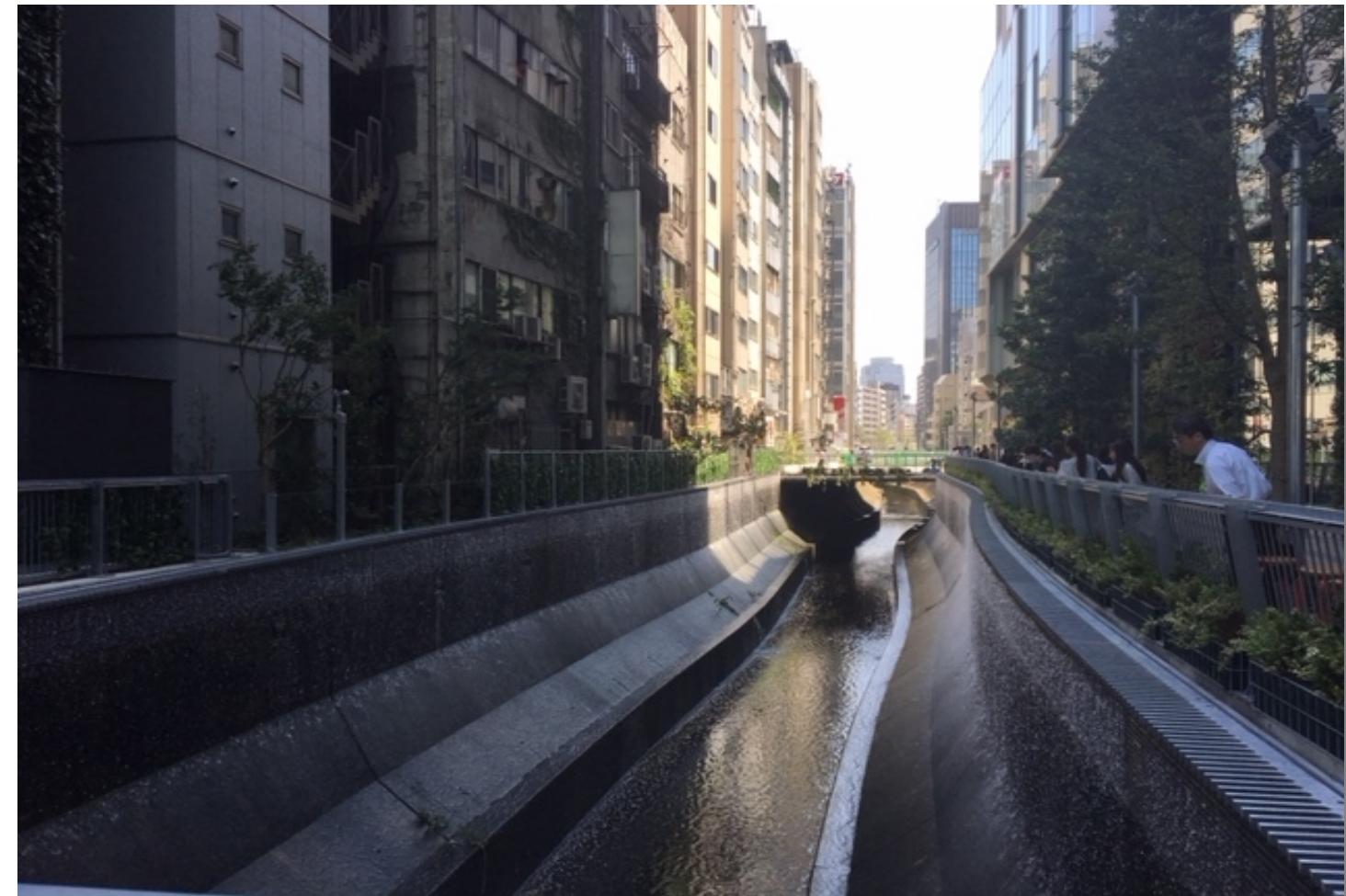
뉴욕타임스는 '포장의 껍질을 걷어낸 서울의 물길'이라는 기사에서 "반세기가 넘게 콘크리트로 덮였던 청계천이 복원사업에 따라 갈대가 무성하고 소풍객들이 발을 담그는 물길로 재탄생했다"며 "80년이상 도로 밑에 감춰졌던 뉴욕의 하천도 청계천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

청계천 복원 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해외 반응



방콕시 짜오프라야강 복원 청계천 벤치마킹



동경시 시부야강 복원 청계천 벤치마킹

CHAPTER 02

청계천 2050 마스터플랜

청계천 복원사업의 등장배경 및 비전

2050 마스터플랜의 등장배경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이 '인공 수조'라는 논란과 함께 생태성과 역사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 등장



이에 서울시는 2012년 3월 환경·생태, 문화·도시 전문가와 시민 등 26명으로 구성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발족하여 청계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는 10차례에 걸쳐 역사적·생태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진행

2050 마스터플랜의 비전

1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매력 있는 청계천

2

자연생태가 살아
숨 쉬는 청계천

3

도심 활력 공간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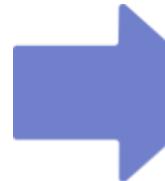
CHAPTER 02

청계천 마스터플랜 단기계획

2050 마스터플랜 단기계획(2014~2018)

단기계획 주요 내용

- 하천 흐름 곡선화, 보 철거 및 징검다리 개선
- 하천 수목과 유사한 수림대 설치
- 비닐 차수막 제거
- 수표교 원위치 이전을 위한 안전진단, 부지매입



단기 계획은 청계천의 자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변화에 중점

단기계획 평가

- 실제 이행결과 보 철거만 완료됨
- 곡선화, 비닐차수막 제거 등은 예산 확보 문제, 행정적 우선순위 미흡 등으로 실현하지 못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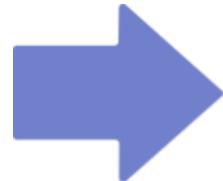
CHAPTER 02

청계천 마스터플랜 중기계획

2050 마스터플랜 중기계획(2019~2030)

중기계획 주요 내용

- 수표교 등 역사 문화재 중건
- 백운동천 등 청계천 상류 계곡수 유입
- 중하류 구간 수질개선



중기 계획은 청계천의 생태성과 역사성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

중기계획 실행 현황

- 역사 문화재 중건을 위한 부지 매입, 안전진단 등 기초 작업이 일부 진행됐으나,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 여전히 한강물과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백운동천과 같은 청계천 상류 계곡 복원은 예산확보, 행정적 우선순위 등의 문제로 아직 실현되지 못함
- 중하류 구간 수질개선과 물고기 폐사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고, 일부 생태 복원의 시도가 있었으나 자연성 회복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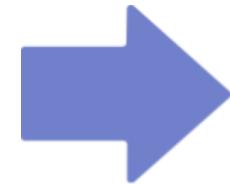
CHAPTER 02

청계천 마스터플랜 장기계획

2050 마스터플랜 장기계획(2031~2050)

장기계획 주요 내용

- 옥류동천, 남산동천과 청계천 물길 연결
- 역사문화거리, 보행 우선가로 조성
- 매력적인 청계천 및 주변 지역 조성



장기계획은 청계천의 경관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

CHAPTER 02

앞으로의 방향성 제언

앞으로의 방향성 제언



유지비 절감

- 자연유량확보: 청계천 상류 백운동 천 복원, 우수 및 유출 지하수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구간 확대: 유지 용수공급시설 등

단계별 목표 현실적 조정

일부 구간 생태 복원, 현실 가능성 있는 역사, 문화적 복원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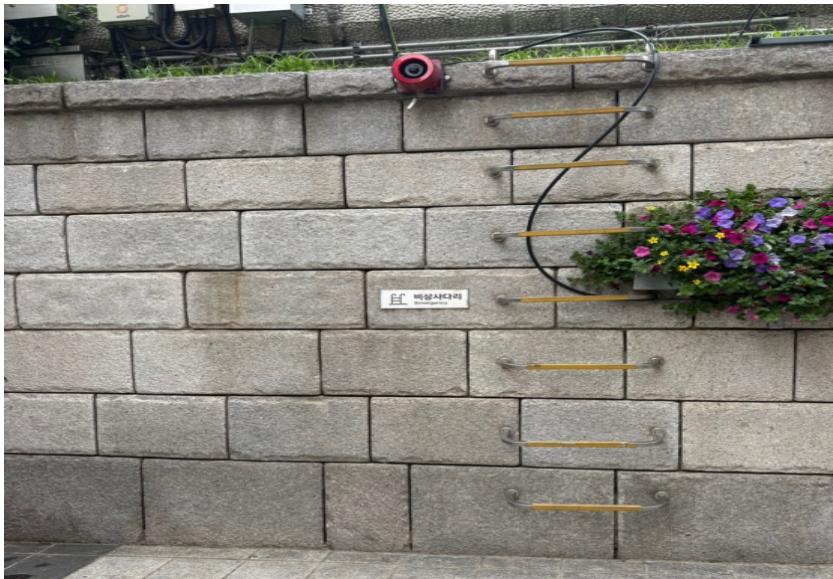
생태 및 문화 역사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체험장소 마련, 접근성 좋은 곳에
홍보 및 자료 배치



청계천 2050 마스터 플랜

현장답사 참고 사진



THANK YOU

감사합니다